

[국어B 6강 완성] 2016학년도 수능대비 강의노트

문법 Final 개념

국어강사 신한종 (국신T)

現 Orbi Class 인강

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

現 목동아레테언어논술학원

前 노랑진이투스 (마감강사)

前 외고, 자사고 특강

[저서] 절대(絶對)국어 시리즈

Orbi Class

[1강] 문법 필수개념, 음운

[1강] Chapter1. 문법 공부를 위한 필수! 기본용어

음운 체계

1. 모음 : 홀로 음절(소리마디)을 이룰 수 있는 독립적인 소리

하늘·땅·사람[天地人] 삼재로 기본 3글자를 만들고, 가획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

① 단모음 : 소리 내는 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모음

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		앞(전설 모음)		뒤(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높음(고모음)	ㅣ	ㄱ	ㅡ	ㅈ
	중간(중모음)	ㅔ	ㅉ	ㅑ	ㅊ
	낮음(저모음)	ㅙ		ㅓ	

② 이중모음 : 발음할 때,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는 것

* 이중모음 = 반모음 + 단모음

* 반모음 | 계열의 이중모음이란?

()

2. 자음 : 모음과 만나야 소리가 나는 의존적인 소리

	조음 방법	조음 위치	두 입술 [순음]	혀끝	센입천장 (경구개)	여린입천장 (연구개)	목청 사이	
								안울림 소리
된소리(경음)	ㅃ	ㄸ		ㄲ				
거센소리(격음)	ㅍ	ㅌ		ㅋ				
파찰음 (파열과 마찰 모두)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ㅊ			
	거센소리				ㅌ			
마찰음 (공기가 좁은 틈 사이로 새어 나감)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음절

소리의 최소 단위로서, 국어의 음절은 반드시 모음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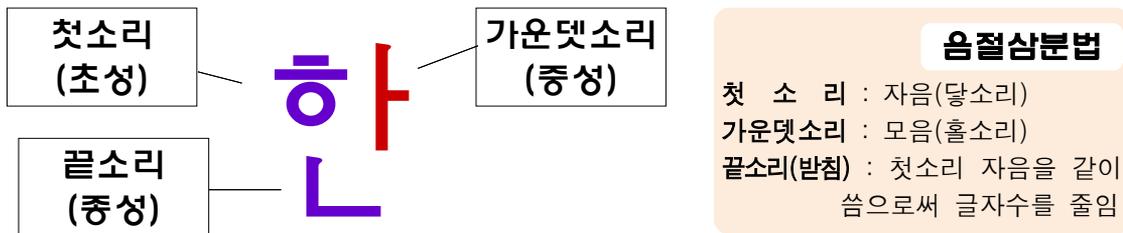
음절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모음의 앞뒤에 자음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없으므로 모음에 붙어야 한다.

국어의 음절은 ‘아, 어, 여, 왜……’와 같이 **모음**만으로 되는 음절

‘안, 옥, 울, 열, 웬……’과 같이 **모음+자음**으로 되는 음절

‘가, 나, 교……’와 같이 **자음+모음**으로 되는 음절

‘강, 산, 달, 별……’과 같이 **자음+모음+자음**으로 되는 음절, 네 종류가 있다.



품사

형태 변화	기능	의미		예
가변어	용언	동사	움직임을 나타냄	달리다, 먹다, 자다, 공부하다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냄	예쁘다, 빠르다, 검다
불변어	체언	명사	이름을 가리킴	책, 사람, 전화기, 개
		대명사	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	나, 너, 그, 우리, 그것
		수사	수(數), 순서를 나타냄	하나, 둘, 일, 이, 삼
	수식언	관형사	주로 체언을 꾸밈	한, 두, 옛, 오랜, 새
		부사	주로 용언을 꾸밈	정말, 매우, 참, 아주, 꽤
	관계언	조사	문장성분들 간의 관계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줌	이/가, 은/는, 을/를, 에게, 에서, 만, 도
독립언	감탄사	감탄, 부름, 대답 등	깁, 으, 야, 어이	

용언의 활용

‘활용’이란 용언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기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즉,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이다.

• 어간 -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뜻을 지닌 줄기가 되는 부분이다.

• 어미 -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어간 뒤에 붙는다.

단어의 끝에 오는 ()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가 있다.

접사

‘접사’란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꾸주는 형식 형태소

(1) 접두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①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할 뿐이고 품사를 바꾸지 못함. (한정적 접사)

예) 갓스물, 개소리, 애호박, 맨손, 들볶다, 시퍼렇다, 설익다, 깎보다

(2)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중요 2번 정독하여, 접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

① 명사로 파생됨

└ 명사 + 접미사 : 송아지, 선생님, 김씨, 목+아지

└ 동사형용사 어근 + 접미사(-으)ㄴ, -이, -기, -개, -애) : 슬픔, 물음,
벌이, 크기, 쓰기, 지우개, 막+애

② 동사로 파생됨

└ 동사 어근 + 접미사(치, 이, 히, 리, 기) : 놓치다, 먹이다, 잡히다, 벌리다, 남기다

| 명사 + 접미사(-하) : 위반하다

| 부사 + 접미사(-거리, -하) : 꿈틀거리다, 철렁거리다, 더하다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밝히다, 녹이다, 높이다, 낮추다, 늦추다, 넓히다

③ 형용사로 파생됨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깜+알다, 높다랄다, 동그랄다

| 명사 + 접미사 : 가난하다, 학생답다, 슬기롭다, 값진다, 기름진다

| 자연스럽다

| 부사 + 접미사 : 차근차근하다, 보들+알다

| 관형사 + 접미사 : 새롭다

└ 동사 어근 + 접미사 : 앞+브다, 믿+엎다

④ 부사로 파생됨

└ 동사 어근 + 접미사 : 맞+우, 넘+우, 참+아, 비릇+오>비로소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잣+우, 많이, 깨끗이, 높이, 다르+이>달리,

| 급히, 없이, 건강히

| 부사 + 접미사 : 곳곳이, 집집이, 더욱이, 일찍이

└ 명사 + 접미사 : 정성껏, 힘껏, 진실로, 정말로

[1강] Chapter2. 음운변동

[음운이란?]

: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

- 분절음운
- 비분절음운

[음운 변동, 표준발음규정]

- 발음할 때의 음운현상을 규정한 규칙

[음운 변동의 출제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파악하기
교체	1. 교체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2. 동화	자음동화(비음화, 유음화), 모음동화
3. 탈락		자음탈락(ㅎ, ㅅ, ㄹ탈락), 모음탈락(ㅡ, ㅓ, 동음탈락)
4. 축약		거센소리되기(자음축약), 모음축약
5. 첨가		사잇소리 현상, ㄴ첨가

* 음운변동 결과가 상이할 때, 반드시 점검해봐야 할 것은?

1.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음절의 끝소리,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

[끝소리 규칙]

앞	→	[입]
옷, 낫, 꽃, 바깥, 히을		[을], [낫], [꽃], [바깥], [히을]
밖, 부엌		[밖], [부엌]

[연음현상과 함께 이해]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온다면?

예) 옷이, 옷을, 값이, 값을, 낫으로

>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온다면?

예) 꽃 위, 옷 안, 옷 아래

(2) 된소리되기 (경음화)

: 두 개의 안울림소리(장애음)가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장애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를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국밥 → 「국빱」, 걷고 → 「겹꼬」, 없다 → 「업따」,
덧개 → 「덑개」, 역도 → [역또], 젓소 → 절소 → [절쏘]

- 단, 어간말 자음이 ‘ㄴ, ㄹ’일 때 뒤 따르는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형사형 어미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함.

(굶고 [굸:꼬], 신고 [산:꼬], 갈 데가 [갈 떼가] 등)

2. 동화

(1) 자음동화

: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

- 비음화(ㅁ, ㄴ, ㅇ) :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ㅂ, ㄸ, ㄱ → [ㅁ, ㄴ, ㅇ] / ㅁ, ㄴ 앞

(ㄴ) 유음 'ㄹ'이 비음 'ㅁ, ㅇ'을 만나면 비음 'ㄴ'으로 변화

ㄹ → [ㄴ] / ㅁ, ㅇ 앞

(ㄷ) ㅂ, ㄸ, ㄱ + ㄹ → [ㅁ, ㄴ, ㅇ] + [ㄴ]

예) 국물, 남루, 독립, 섭리 등

- 유음화(ㄹ) :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

'ㄴ' 과 'ㄹ' 이 만났을 때 'ㄴ' 이 'ㄹ' 로 바뀌는 현상 ㄴ → [ㄹ] / ㄹ의 앞이나 뒤	신라 → [실라], 천리 → [철리], 논리 → [놀리] (설측음화)
	칼날 → [갈랄], 찰나 → [찰라], 말눈 → [말룬], 실날같이 → 실랄가티 → [실랄가치]
	알는 → 알는 → [알룬], 끌는 → 끌는 → [끌룬], 훑는 → 훑는 → [훑룬]

<예외>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 : 견난], 임진란[임 : 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단녁], 공권력[공권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례],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입원료[이뵤뇨], 구근류[구근뉴]

(2) 모음동화

: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 대부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설모음화 : 후행 'ㅣ'의 영향으로 선행 'ㅏ, ㅑ, ㅓ, ㅕ'가 'ㅐ, ㅔ, ㅖ, ㅘ'로 바뀌는 현상

예> 아비 → [애비], 잡히다 → 자피다 → [재피다], 먹이다 → 머기다 → [메기다]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설모음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구개음화

: 'ㄷ, ㅌ' 등의 치조음이 'ㅣ' 모음과 결합할 때, 'ㅈ, ㅊ' 등의 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예) 굳이[구지], 해돋이[해도지], 같이[가치], 붙이다[부치다]

예) 달히어 [다티어 → 다치어 → 다쳐], 굳히다 [구티다 → 구치다]

4. 첨가

(1) 사이소리 현상

[사이소리 현상이 성립하는 패턴]

0. 합성어

1. 접점에 울림소리가 존재해야 함.
2. 발음상 조건 충족 (된소리, ㄴ첨가, ㄴㄴ첨가)

[조건1] 울림소리 + 안울림예사소리 (밤길, 눈사람, 코등)

[조건2] 모음 + 안울림예사소리 (벧사공, 촛불)

[조건3] 모음 + 울림소리(ㄹ, ㄴ) (이몸, 코날)

[조건4] 모음 + 모음 (가윗일, 예삿일)

[조건5] 뒷말이 'ㅣ'로 시작될 때 (논일, 물약, 아래이)

[사이시옷까지 붙이는 패턴]

- +3.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받침이 없을 경우)
- +4.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

— <보기> —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2.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 (2)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뒷간(退間) 횡수(回數)

[ㄴ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가 들어가는 이중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ㄴ, ㄴㄴ이 발음시 덧난다.

예) 숨+이불, 눈+요기, 교육+열, 발+이랑(명사)

[평가원 기출문제 - 연습하기]

1.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4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A형 11번

※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부엌, 간, 옷, 빗, 달, 섬, 앞, 창

- (1)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더 찾아보자. (㉣)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 ①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 ②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③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ㄴ, ㄹ’ 중 하나로 바뀐다.
- ④ ㉣: ‘뉘’와 ‘뉘’를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발음된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2014학년도 대수능 9월 모의평가 A형 11번

<보기>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뉘]’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팽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녀덧]’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2강] 형태소, 품사

[2강] Chapter1. 형태소

[배우고 있는 부분, 지도 그리기]

음운 - 형태소 - 단어 - 구, 절 - 문장

○ 형태소 : 뜻(의미)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의미의 최소단위)

1) 자립성 유무에 따라

┌ 자립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약간의 어근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 의존 형태소 -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2) 의미의 기능 여부에 따라

┌ 실질 형태소 - 체언, 수식언, 감탄사, 용언의 어근, 어간

|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 형식 형태소 - 조사, 어미, 접사

예)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

* 음운론적 이형태 :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형태

[받침의 유무로 구분]

[모음조화로 구분]

*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형태

[참고] 매개 모음 '-으-'는 형태소 자격이 없다.

⇒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으-'가 실질적,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으-'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

예) 먹다 ⇒ 먹으니, 먹으면, 먹으나

[평가원 기출문제 - 연습하기]

1.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13/수능(홍) 11

< 보 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2강] Chapter2. 품 사

[품사의 패턴 파악]

기능 기준	형태 기준	9품사(의미기준)	필수 출제패턴 정리	
체언	불변어	명사	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의 조사사용 차이를 알고 있는가?	
		대명사	인칭대명사, 미지칭, 부정칭, 재귀대명사 알고 있나? 기본 지시대명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수사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을 수 있나?	
관계언		조사	격조사, 모조리 암기하고 있나?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	
독립언		감탄사	-	
수식언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나?	
		부사	문장부사를 알고 있나? 부사와 용언을 구분할 수 있나?	
용언		가변어	동사	불규칙활용, 본용언/보조용언 알고 있나?
			형용사	동사, 형용사 구분하나?

1.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의 출제패턴 정리

(1) 명사

- 유정명사 / 부정명사
- 보통명사 / 고유명사
- ※ 대로, 만큼, 뿐
 - 의존명사
 - 조사

(2) 대명사

① 인칭 대명사

- (ㄱ) 1인칭 대명사 : 말하는 이를 가리킴. 예) 나, 우리, 저, 저희
- (ㄴ) 2인칭 대명사 : 듣는 이를 가리킴. 예) 너, 자네, 그대, 당신
- (ㄷ) 3인칭 대명사 : 다른 사람을 가리킴.

[이것만 기억하자]

- 예) 저이, 그이, 이분, 그분, 어느/누구(미지칭), 아무/누구(부정칭), 자기/당신(재귀)
- 예) [미지칭, 부정칭 구분이 필요한 단어] 누구/무엇/어디

② 지시 대명사 → 관형사와 의존 명사의 합성

[이것만 기억하자]

③ 대명사 품사의 통용

-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 이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
- 열쇠가 여기 있었네!

(3) 수사

① 수사 품사의 통용

- 두 명이 여기 왔다.
-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2. 관계언(조사)의 출제패턴 정리

(1) 격조사 (무조건 체언과 결합하여, 자격(문장성분)을 부여, 생략가능)

- ① 주격조사 → 주어 : ~이, ~가, ~에서(단체), ~께서
- ② 목적격조사 → 목적어 : ~을/를
- ③ 서술격조사 → 서술어 : ~이다
- ④ 보격조사 → 보어 : ~이/가 + (~되다 / 아니다)
- ⑤ 관형격조사 → 관형어 : ~의
- ⑥ 부사격조사 → 부사어 : ~에, ~에서, ~에게, ~(으)로, ~와(비교) 등
- ⑦ 호격조사 → 독립어 : ~야 (중세국어 : ~하(존칭))

(2) 접속조사 vs 비교 부사격조사 구분

-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겹문장이면) 접속 조사이며
 바꾸어 쓸 수 없으면(홀문장이면) 부사격 조사

예) 나는 국어와 수학을 잘한다. ⇒ 나는 국어를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예) 나는 철수와 비슷하다. ⇒ *나는 비슷하다. *철수는 비슷하다.

(3) 보조조사 (어떤 품사외도 결합할 수 있는 조사, 생략불가)

- ① 어떤 특별한 뜻(일정한 의미)을 더해주는 조사
- ② 말하는 이의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쓴다.
- ③ 말의 표현을 더 섬세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

형 태	의 미	예 문
은/는	대조(주제)	사자는 맹수다.
도	역시, 동일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만	유일, 단독	너만 꼭 그런 짓을 한다.
요	상대높임	잘 먹었어요.
까지	극한	너까지 그럴 줄이야.
마저	한계	그녀마저 나를 비난하였다.
조차	첨가	철수조차 영희를 비난하다니.
부터	출발점	부천부터 서울까지.
마다	보편	사람마다 그를 욕했다.
(이)야	필연, 당위 강조, 감탄	설마 그럴 리야 있겠니? 우습구나야. 굉장히 좋다야.
(이)나 (이)나마	최후 선택	밥이나 주시오.오죽이나 할까? 천원이나마 남았더라면 좋았을텐데

3. 용언(동사, 형용사)의 출제패턴 정리

(1) 용언의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 활용 :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
- 어간 : 활용시 변화하지 않는 부분
- 어미 : 활용시 변화하는 부분
- > 용언 외에 활용하는 نوم은?
- > 피동, 사동, 강세의 접사가 붙는 말은 그 접사까지 포함하여 어간으로 본다.
 - 먹이다, 먹히다, 밀치다, 깨뜨리다

어근(語根) 과 어미(語尾)

⇒ 어근은 접사의 상대 개념이며, 어간은 어미의 상대 개념이다.

예	먹	+	이	+	다	,	깨	+	뜨리	+	다
	어근		사동접사				어근		강세접사		
	└───┬───┘					└───┬───┘					
	어간		어미			어간		어미			어미

(2) 어미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

['어미' 지도 그리기]

① 어말 어미의 갈래

- (ㄱ) 종결 어미 - 문장을 종결
- (ㄴ) 연결 어미 - 문장이나 구를 연결
- (ㄷ) 전성 어미 - 용언이 명사, 관형사,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함.
 - ┌관형사형 전성어미 : -(으)ㄴ, -는, -(으)ㄹ, -던
 - | 명사형 전성어미 : -기, -(으)ㄹ,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 └부사형 전성어미 : -게, -도록

② 선어말 어미

- ┌높임 : -시-
- └시제
 - ┌현재 : -는-/-ㄴ-
 - | 과거 : -었-/-았-
 - | 미래 : -겠-
 - └회상 : -더-

[예상가능한 Killer 문항]

1. <보기>에서 언급한 ‘품사의 통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품사는 각 부류에 소속되는 단어들의 문법적 성질이 일정하다고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는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 범주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고 한다.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그 사람만큼 될 수 있다.
- ②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열 번 찍어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 ③ 오늘은 달이 매우 밝다. 벌써 날이 밝는다.
- ④ 다섯까지는 필요 없고 셋이면 되겠는데. 고구마가 다섯 가마니에 좁쌀이 두 가마니였다.
- ⑤ 비 온 뒤라 그런지 앞산이 한결 더 푸르러 보인다. 푸른 공기를 들이마셨다.

[평가원 기출문제 - 연습하기]

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2점] 2007(6월)/평가원 14

<보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3.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2014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A형 12번

<보기 1>

<문장>

-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설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 2>

- * 그는 멋쩍게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 그 가수는 현란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 오늘따라 학생들의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그림.”이라고 썼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강] 단어의 형성, 문장성분

[3강] Chapter1. 단어의 형성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개념어	기억해야 할 패턴
합성어	의미상 구분	대등	
		종속	
		융합	
	형태상 구분	비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합성어, 파생어의 패턴 파악]

구 분		출제 패턴	기억해야 할 패턴
파생어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뜻+	
		품사 변경	
	품사 변경여부로 구분	문장구조 변경	
		문장구조 변경+품사변경	

1. 합성어의 세부 출제패턴

(1) 합성법의 유형

- ① 통사적 합성법 : 우리 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과 같은 유형의 합성.
(명+명, 관형어+명, 주어+서술어, 부사어+서술어....)
예) 돌다리, 작은형, 힘들다, 앞서다
- ② 비통사적 합성법 : 우리 말의 일반적 단어 배열에 어긋나는 합성.
(용언의 어근 + 명사)
예) 묵밭(묵은 밭), 늦더위(늦은 더위), 부슬비, 날뛰다, 굳세다

비통사적 합성어 총정리

- 1. 용언이 어미 없이 연결
- 2. 부사가 체언 앞에 위치
- 3. 우리말 어순과 다른 방식

e.x) 늦잠, 덮밥, 여닫다, 우짚다, 부슬비, 독서, 급수, 등산

(2) 합성어의 의미상 갈래

- ① 대등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대등한 자격으로 연결된 말.
예) 말 + 소 > 마소, 높푸르다, 오가다
- ② 종속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되, 서로 주종 관계로 연결된 말
예) 국 + 밥 > 국밥, 소나무, 돌다리, 돌아보다
- ③ 융합관계 : 두 단어나 어근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의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말.
예) 밤 + 낮 > 밤낮(늘), 춘 + 추(나이), 세 + 월(시간)
광 + 음(시간), 돌아 + 가다(죽다)

접미사 '-장이'와 '-쟁이'

- 1. 기술자에게는 '-장이' 예) 미장이, 땀장이, 갓장이, 양복장이
- 2. 성질, 행동, 모양의 뜻에는 '-쟁이' 예) 멧쟁이, 심술쟁이, 앓은뱅이

(3) 합성어의 파생

- 합성어에 다시 접사를 붙여 새로운 파생어를 만들기도 함.
예) (해+돋)+이, (품+값)+음, (팽이+치)+기, (나+들)+이, (다+달)+이
되+(돌아+가다), (소금+굽)+이, (툼+툼)+이

2. 파생어의 세부 출제패턴

(1) 접두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① 뒤에 오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할 뿐이고 품사를 바꾸지 못함. (한정적 접사)

예) 갓스물, 개소리, 애호박, 맨손, 들볶다, 신퍼렇다, 설익다, 깎보다

(2) 접미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 중요 2번 정독하여, 접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자.

① 명사로 파생됨

┌ 명사 + 접미사 : 송아지, 선생님, 김씨, 목+아지

└ 동사형용사 어근 + 접미사(-으)ㅁ, -이, -기, -개, -애) : 슬픔, 물음,
벌이, 크기, 쓰기, 지우개, 막+애

② 동사로 파생됨

┌ 동사 어근 + 접미사(치, 이, 히, 리, 기) : 놓치다, 먹이다, 잡히다, 벌리다, 남기다

| 명사 + 접미사(-하) : 위반하다

| 부사 + 접미사(-거리, -하) : 꿈틀거리다, 철렁거리다, 더하다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밝히다, 녹이다, 높이다, 낮추다, 늦추다, 넓히다

③ 형용사로 파생됨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깜+알다, 높다랄다, 동그랄다

| 명사 + 접미사 : 가난하다, 학생답다, 슬기롭다, 값지다, 기름지다

| 자연스럽다

| 부사 + 접미사 : 차근차근하다, 보들+알다

| 관형사 + 접미사 : 새롭다

└ 동사 어근 + 접미사 : 앞+브다, 믿+엎다

④ 부사로 파생됨

┌ 동사 어근 + 접미사 : 맞+우, 넘+우, 참+안, 비롯+오>비로소

| 형용사 어근 + 접미사 : 잣+우, 많이, 깨끗이, 높이, 다르+이>달리,

| 급히, 없이, 건강히

| 부사 + 접미사 : 곳곳이, 집집이, 더욱이, 일찍이

└ 명사 + 접미사 : 정성껏, 힘껏, 진실로, 정말로

접미사의 표기

받침이 있는 어근 아래에 모음으로 된 접미사가 붙을 때는

ㄱ.원형을 밝힐 수도 있고 예) 많이, 없이, 물음, 벌이

ㄴ.원형을 밝히지 않고 이어 적기도 함. 예) 모가지, 마주

동사(의 명사형) 와 (파생) 명사의 구분

'-(으) ㅁ, -기'

1. 서술성이 없거나,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파생) 명사.

예) 다음 보기에서, 좋은 그림은 비싸다.

2. 주어에 대한 서술성이 있거나,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동사(의 명사형).

예) 나 보기가 역겨워, 복잡한 것을 빨리 그리기는 어렵다.

[평가원 기출문제 - 연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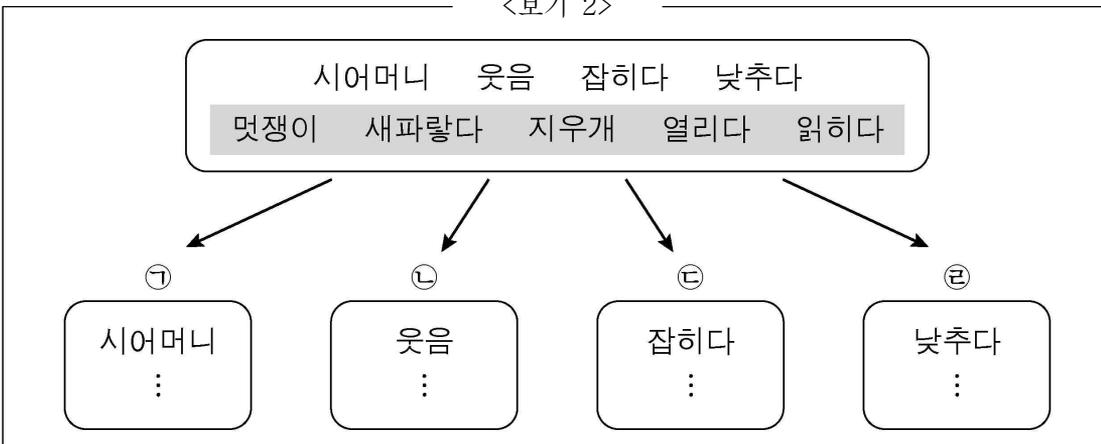
1.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2(9월)/평가원 12

<보기 1>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처럼 바뀐다.
- ㉣ 위의 ㉡과 ㉢ 모두에 해당함.
예 형용사 ‘낮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낮추다’처럼 바뀐다.

<보기 2>



- ①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에 들어간다.
- ②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파랗다’는 ㉠에 들어간다.
- ③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④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⑤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3강] Chapter2. 문장성분

[문장성분의 패턴 파악]

문장성분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주성분	주어	체언+격조사(보조사)	-
	목적어	체언+격조사(보조사)	보조사가 붙어 있을 때의 목적어 구분
	보어	체언+격조사	보어는 무엇인가?
	서술어	용언, 체언+격조사	서술어의 자릿수
생략불가	필수부사어	체언+격조사, 부사(~게)	필수 부사어를 구분할 수 있는가?
	관형어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격조사	관형어가 생략 불가능한 경우는?
부속성분	관형어	관형사, 체언+격조사	-
	부사어	부사, 체언+격조사	문장부사어

1. 문장성분의 필수 출제패턴

(1) 서술어의 자릿수 + 필수부사어

① 서술어의 자릿수

(ㄱ) 한 자리 서술어 :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함.(자동사, 형용사)

예) 새가 운다. 꽃이 붉다.

(ㄴ) 두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함.(타동사)

⇒ 주어+목적어/보어/필수부사어

예) 나는 물을 마셨다. 물이 얼음이 된다.

그는 서울 지리에 밝다.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ㄷ) 세 자리 서술어 : 주어 이외에 두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

주격, 목적격 조사 이외의 격조사를 가진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

(수여 동사 - 주다, 보내다) ⇒ 주어 + 목적어 + 목적어/필수 부사어

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순이가 나를 손을 잡아끈다.

필수적 성분의 부사어

-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

(ㄱ) '같다, 다르다, 비슷하다, 닮다, 틀리다, ...' 등은 '체언+과/와'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

(ㄴ) '넣다, 드리다, 두다, 던지다, 다가서다, ...' 등은 '체언+에/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

(ㄷ) 수여 동사는 목적어 이외에 '체언+에게'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

(ㄹ) '삼다, 변하다'는 '체언+(으)로'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 물이 얼음으로 변하였다.

(ㄴ) 이외에도 특정 용언은 '체언+부사격조사'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

예) 여기다, 다니다, 주다, 부르다, 하다, 못하다, 바뀌다, 속다,
제출하다, 맞다, 적합하다, 선출하다, 어울리다, (-으로) 만들다,
일꾼다, (-이라) 이르다, (-와) 의논하다, (-에서) 살다

[평가원 기출문제 - 연습]

1.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예비)/평가원(A) 12

— <보 기> —

㉠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2.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2점] 2013(6월)/평가원 11

— <보 기> —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냐에 따라 동일한 '체언 +격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4강] 문장

[4강] Chapter1. 문장의 형태, 의문문, 부정문

[문장의 형태 패턴 파악]

문장성분의 형태		기억해야 할 패턴
출문장	-	
결문장	안은-안긴문장	[안은-안긴 문장에서 안긴문장 절의 종류 파악]
	이어진문장	[이어진 문장의 종류 파악]

1. 문장의 형태 출제패턴

(1) 안은-안긴 문장의 종류 구분하기

[안긴문장의 종류를 파악하는 패턴]

[실제 문장으로 패턴 연습하기]

- ㄱ. 담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2) 이어진 문장의 종류 구분하기

[이어진 문장의 종류를 파악하는 패턴]

[실제 문장으로 패턴 연습하기]

- ㄱ.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 ㄴ. 그는 갔으나, 예술은 살아 있다.
- ㄷ. 봄이 오니 날씨가 따뜻하다.
- ㄹ.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간다.

[평가원 기출문제 - 연습]

1.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2005/수능(홀) 13

————<보기>————

- ㄱ. 담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장’입니다.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4강] Chapter2. 사동, 피동, 시제, 높임

[사동, 피동, 시제, 높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사동에서 기억할 패턴	[사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사동에서 유의할 패턴]	
피동에서 기억할 패턴	[피동을 구분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피동에서 기출 패턴]	
시제에서 기억할 패턴	[절대시제, 상대시제]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	
높임에서 기억할 패턴	높임의 종류	주요 출제패턴	중세국어
	주체높임	누구를 높이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 간접높임	누구를 높이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객체높임	누구를 높이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상대높임	누구를 높이는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올바른 문장표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중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 ○ 주어와 목적어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호준이와 윤석이를 놀렸다. ○ 비교 대상의 중의성 예)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 ○ 병렬 구문의 중의성 예) 나는 사과와 감 두 개를 골랐다. ○ 부정문의 중의성 예) 학생들이 다 안 왔다. ○ 진행과 완료의 중의성 예)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
어법에 맞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성분 갖추기 예) (부사어의 생략)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예) (서술어의 생략) 계곡에서는 수영과 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어의 생략)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문장 성분간의 호응 예) (주어-서술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부사어-서술어) 반드시 먹지 마세요. 절대로 먹어야 합니다. 비록 ~일지라도 ○ 이중피동

**[5강] 문장표현,
외래어/로마자, 국어의 역사**

[5강] Chapter1. 올바른 문장표현

[올바른 문장표현의 출제패턴]

구 분	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
<p>중의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 ○ 주어와 목적어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 나는 호준이와 윤석이를 놀렸다. ○ 비교 대상의 중의성 예)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 ○ 병렬 구문의 중의성 예) 나는 사과와 감 두 개를 골랐다. ○ 부정문의 중의성 예) 학생들이 다 안 왔다. ○ 진행과 완료의 중의성 예)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
<p>어법에 맞는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성분 갖추기 예) (부사어의 생략)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 예) (서술어의 생략) 계곡에서는 수영과 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 (주어의 생략)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문장 성분간의 호응 예) (주어-서술어) 당부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예) (부사어-서술어) 반드시 먹지 마세요. 절대로 먹어야 합니다. 비록 ~일지라도 ○ 이중피동

[5강] Chapter2. 국어의 역사

[제자원리의 출제패턴]

1. 초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상형)	가획자 (가획)	병서자	이체자 (이체)
어금닛소리	ㄱ			ㅇ
혓소리	ㄴ			ㄹ
입술소리	ㅁ			
잇소리	ㅅ			ㅆ
목소리	ㅇ			

- 병서자 : 나란히 쓴 글자
 - * 각자 병서 : 된소리(쌍자음)
 - * 합용 병서 : 다른 자음끼리 결합 (ㅃ, ㅍ, ㅍ, ㅆ 등)

2. 중성의 제자 원리

구분	기본자	초출자(기본+기본)	재출자(초출+)
天(양성 모음)	、	ㅏ, ㅑ	ㅛ, ㅕ
地(음성 모음)	—	ㅓ, ㅗ	ㅜ, ㅠ
人(중성 모음)		·	·

3. 중성의 제자 원리

- 중성부용초성 : 초성을 다시 중성에 사용함.
- 8중성, 7중성법을 거쳐 현재는 중성부용초성

[중세국어의 특징 관련 출제패턴]

1. 초성의 제자 원리

- ①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모음
- ② 어두 자음군 표기 **예** ㅼ들(15C)>똥을, ㅼ메(15C)>쌈에
- ③ 모음 조화 철저. **예** ㅅ쫁롤(15C)>자를
- ④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ㅍ디(15C)>퍼지, 고터 > 고쳐
- ⑤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예** 스물(15C)>스물, 무지개 > 무지개
- ⑥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예** 니르고져(15C)>이르고자
- ⑦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
- ⑧ 현대 국어와 다른 조사 사용 → 현대국어 격조사 파악으로 승부를 본다.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 사용	예 ㄷᆞᆫᆫ에 달아(15C)> 중국과 달라
‘동등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격 조사 ‘와로’ 사용	예 文문字字와로(15C)> 문자와는
주격 조사가 자음+ ‘이’ / 모음+ ‘ㅣ’ / ‘∅’	예 ㅎ·배(15C)> 할 바가, 뉘 > 산이, 새미 > 샘이
목적격 조사 을/를, 을/를	예 我后를 / 天下를

- ⑨ 현대 국어와 다른 어휘의 의미

의미 변화	예 어린: 어리석은(15C) > 나이가 적은, 어엿비: 가엿게(15C) > 불쌍하게, 예쁘게
	예 늙: 사람(15C) > 남자를 낫잡아 이르는 말
	예 영감: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 >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는 말

- ⑩ 이어 적기(연철) 원칙.

이어 적기(연철)	끊어 적기(분철)	거듭 적기(중철)
말쌈미	말쌈이	말쌈미

- ⑪ 받침 표기

종성부용초성	8 종성법	7 종성법	종성부용초성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 ㄴ, ㄹ, ㅁ, ㅂ, ㅅ, ㅇ	모든 자음을 종성에 사용
꺄	꺄	꺄	꺄

- ⑪ ㅎ 종성체언
- ⑫ ㄱ 종성체언
- ⑬ 높임법의 변화
 -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
 -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
- ⑭ 병의 변화 **예** 새빙->새우, 더봉->더워
- ⑮ 명사형 어미 ‘움/움’ **예** 쑤메 > 쓰+움+에

[5강] Chapter3. 로마자 표기 & 외래어 표기

[제자원리의 출제패턴]

1. 로마자 표기법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ㅞ	ㅟ	ㅚ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2. 이중 모음

ㅑ	ㅓ	ㅕ	ㅠ	ㅞ	ㅟ	ㅚ	ㅜ	ㅟ	ㅚ	ㅜ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	pp	p	

2. 파찰음 3. 마찰음 4. 비음 5. 유음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j	jj	ch	s	ss	h	n	m	ng	r, l

[붙임 1] ‘ㄱ, ㄷ, ㅍ’ 은 모음 앞에서는 ‘g, d, b’ 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 로 적는다.

[붙임 2] ‘ㄹ’ 은 모음 앞에서는 ‘r’ 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 로 적는다.

단, ‘ㄹㄹ’ 은 ‘ll’ 로 적는다.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2. 외래어 표기법

• 외래어 표기의 원칙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6강] EBS Killer 문항

[6강] 반드시 봐야 하는 EBS Killer 문항

○ 수능특강 문법 수능연습2 1번 (로마자 표기)

1. (보기)의 ㉠~㉤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음의 로마자 표기)

ㄱ	ㄲ	ㅋ	ㄷ	ㄸ	ㅌ	ㅃ	ㅍ	ㅍ	ㅈ	ㅉ	ㅊ	ㅅ	ㅆ	ㅎ	ㄴ	ㅁ	ㅇ	ㄹ			
g	k	kk	k	d	tt	t	b	p	pp	p	j	jj	ch	s	ss	h	n	m	ng	r	l

(로마자 표기의 실제)

- ㉠ 백마[뵁마]: Baengma, 신라[실라]: Silla
- ㉡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 알약[알락]: allyak
- ㉢ 해돋이[해도지]: haedoji, 같이[가치]: gachi
- ㉣ 좋고[조:코]: joko, 놓다[노타]: nota, 목호[무코]: Mukho, 집합[지팝]: jiphap
- ㉤ 죽변[죽뵁]: Jukbyeon, 울산[울싼]: Ulsan, 각도[각또]: gakdo

- ① ㉠을 보니 '달님[달림]'의 로마자 표기에는 자음 동화가 반영되었군.
- ② ㉡을 보니 '첫여름[천녀름]'의 로마자 표기에는 ㄴ 첨가가 반영되었군.
- ③ ㉢을 보니 '불임[부침]'의 로마자 표기에는 구개음화가 반영되었군.
- ④ ㉣을 보니 '국화[구과]'의 로마자 표기에는 거센소리되기가 반영되었군.
- ⑤ ㉤을 보니 '약수[약쑤]'의 로마자 표기에는 된소리되기가 반영되지 않겠군.

○ 수능특강 문법 수능연습4 5번

5.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모음 조화란 한 단어 내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 모음들이 어울리는 현상이다. 국어의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음 조화는 중세 국어 시기에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켜졌다. 가령 어간의 모음이 양성 모음인 'ㄹ, ㅏ, ㅑ'이면 그 뒤에 오는 어미의 모음도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고, 어간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ㅡ, ㅓ, ㅕ'이면 그 뒤에 오는 어미의 모음도 음성 모음으로 시작한다. 즉 '-아~-어', '-으니~-으니', '-옴~-옴'이라는 어미가 있을 때 '-아'와 '-어', '-으니'와 '-으니', '-옴'과 '-옴' 중 어느 쪽이 선택되는지는 어간 모음의 종류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막-'의 경우에는 [㉠] 이, '먹-'의 경우에는 [㉡] 이 선택된다.

- | | |
|---------------|-------------|
| ㉠ | ㉡ |
| ① -아, -으니, -옴 | -어, -으니, -옴 |
| ② -아, -으니, -옴 | -어, -으니, -옴 |
| ③ -아, -으니, -옴 | -어, -으니, -옴 |
| ④ -어, -으니, -옴 | -아, -으니, -옴 |
| ⑤ -어, -으니, -옴 | -아, -으니, -옴 |

○ 인터넷수능 문법 3강 2번

02 <보기>는 학생의 문법 노트이다. ㉠~㉥ 중, 그 예)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확한 문장 사용하기]

1. ㉠ 정확한 단어 사용하기

예) (수정 전) 나이가 많고 작음은 큰 의미가 없다.

→ (수정 후) 나이가 많고 적음은 큰 의미가 없다.

2. ㉡ 외래어를 순화하여 사용하기

예) (수정 전) 학교에서 역까지 셔틀버스가 다닌다.

→ (수정 후) 학교에서 역까지 순환 버스가 다닌다.

3. ㉢ 불필요한 피동 표현 사용하지 않기

예) (수정 전)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이었다.

→ (수정 후)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

4. ㉣ 불필요한 사동 표현 사용하지 않기

예) (수정 전) 형사는 혼자서 그 범인을 구속시켰다.

→ (수정 후) 형사는 혼자서 그 범인을 구속하였다.

5. ㉤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기

예) (수정 전) 한 달 전에 받은 종합 검진 결과가 나오셨습니다.

→ (수정 후) 한 달 전에 받은 종합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인터넷수능 문법 3강 3번

03 ㉠~㉥ 중, <보기>의 부정확한 문장을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부정확한 문장]

㉠ 불굴(不屈)에 의지로 고난을 이겨 내자.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 정민이는 반 대표로써 학교 학생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 진영이가 논술 대회에서 1등을 했다.

㉤ 너와 겨룰 상대는 힘이 센 선수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 ① ㉠: 불굴(不屈)의 의지로 고난을 이겨 내자.
② ㉡: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③ ㉢: 정민이는 반 대표로서 학교 학생회 회의에 참가하였다.
④ ㉣: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 진영이가 논술 대회에서 1등을 했다.
⑤ ㉤: 너와 겨룰 상대가 힘이 센 선수임으로 조심해야 한다.

○ 인터넷수능 문법 4강 6번

06 상황에 따른 인사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할아버지께 세배를 하면서 “절 받으세요.”라고 말한다.
- ㉡ 아침에 만난 이웃 어른께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말한다.
- ㉢ 웃어른과 통화를 하다 전화를 끊을 때 “들어가요.”라고 말한다.
- ㉣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조심하지 그랬니?”라고 말한다.
- ㉤ 웃어른께 송년 인사를 할 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 ① ㉠은 웃어른께 명령형 문장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세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어.
- ② ㉡은 번역 투의 문장이면서 웃어른께 하는 인사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니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
- ③ ㉢은 ‘들어가요’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먼저 끊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은 친구를 나무라는 표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니?”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
- ⑤ ㉤은 웃어른께 ‘고생하다’의 뜻을 가진 ‘수고하다’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

[필수 개념] 잘못된 인사 표현

- 좋은 아침입니다.: 외국어 번역 투의 인사말로 잘못된 표현이다.
- 수고하십시오.: ‘수고(受苦)하다’는 ‘고생하다’의 뜻이 있으므로 윗사람에게는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이다.
- (전화 끊을 때) 들어가요.: 전화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며 명령형 문장이므로 웃어른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절하기 전)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 명령형 문장이므로 웃어른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 건강하십시오.: 명령형 문장이므로 웃어른에게는 쓰지 않는다. 또한 형용사는 명령형을 취하지 않는다.

○ 인터넷수능 문법 5강 5번

05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국어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네 :뉘·손·디·글·빅·훈·다
·내 :되·혹·당·의·셔·글·빅·호·라
:네 므·슴·그·를 빅·훈·다
論 語 孟 子 小 學 을 닐·고 라
- “번역노걸대”(1517)
- (나)
네뉘손디글빅훈다
내漢혹당의셔글빅호라
네므슴글을빅훈다
論語孟子小學을닐그라
- “노걸대언해”(1670)

[현대어 풀이]

너는 누구에게 글을 배웠느냐? 나는 중국 학당에서 글을 배웠다. 너는 무슨 글을 배웠느냐?
논어, 맹자, 소학을 읽었다.

- ① (가)와 달리 (나)에는 방점 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성조가 사라져 더 이상 방점을 표기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보여.
- ② (가)의 ‘:그·를’에는 이어적기가, (나)의 ‘글을’에는 끊어적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③ (가)의 ‘:뉘·손·디’와 (나)의 ‘뉘손디’에서 오늘날에는 사용되지 않는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어.
- ④ (가)의 ‘닐·고라’와 (나)의 ‘닐그라’를 통해 (가)와 (나)에서는 모두 고유어에서의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 ⑤ (가)의 ‘빅·훈·다’와 (나)의 ‘빅훈다’를 통해 (가)와 (나)에서는 모두 주어가 2인칭일 때 ‘-(으)니다’가 의문문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1회 16번

16 <보기>의 ‘히읃 종성 체언’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중세 국어에서 ‘갈[刀], 내[川], 뫼[山], 안內], 우 [上]’ 등은 ‘히읃’을 말음으로 가지는 ‘히읃 종성 체언’이다.

- 갈 [刀] : 갈히(갈ㅎ+이), 갈과(갈ㅎ+과), 갈쁘기(갈ㅎ+쁘기)
- 내 [川] : 내해(내ㅎ+애), 내토(내ㅎ+도), 냇물(내ㅎ+ㅅ+물)

현대 국어에서 ‘안팎’, ‘살코기’, ‘수평아리’ 등은 ‘히읃 종성 체언’의 자취가 남아 있는 단어들이다.

- 안팎(안ㅎ+밖), 살코기(살ㅎ+고기), 수평아리(수ㅎ+병아리)

- ① 중세 국어의 ‘갈히’, ‘내해’는 히읃 종성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뒤에 오는 조사에 연음된 경우이군.
- ② 중세 국어의 ‘갈과’, ‘내토’는 히읃 종성 체언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ㅎ’이 뒤에 오는 조사의 초성과 축약된 경우이군.
- ③ 중세 국어의 ‘냇물’은 히읃 종성 체언이 관형격 표지인 ‘ㅅ’ 앞에 위치하여 ‘ㅎ’이 탈락된 경우이군.
- ④ 현대 국어의 ‘안팎’, ‘살코기’는 히읃 종성 체언이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ㅎ’이 뒤의 예사소리와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된 경우이군.
- ⑤ 중세 국어의 ‘갈쁘기’와 현대 국어의 ‘수평아리’는 히읃 종성 체언이 실질 형태소와 결합할 때, ‘ㅎ’의 음가가 소멸된 경우이군.

○ 수능완성 실전모의고사 3회 16번

16 다음의 ㉠~㉣를 토대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세 국어	현대어 역
㉠	부테 本來 장차 니르시리어늘	부처께서 본래 장차 말씀하실 것이거늘
㉡	부터웃 보스북면	부처를 뵈면
㉢	太子ㅅ 머리에	태자의 머리에
㉣	우리들토 쉼리를 더러 주쇼셔	우리들도 사리를 덜어 주십시오.
㉣	大王하 엇더 나를 모르시느니잇고	대왕이시여 어찌 저를 모르십니까?

- ① ㉠의 ‘니르시리어늘’과 ‘말씀하실 것이거늘’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의 ‘보스북면’과 ‘뵈면’을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높임의 의미를 지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 객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의 ‘太子ㅅ’과 ‘태자의’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형태가 다른 관형격 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의 ‘주쇼셔’와 ‘주십시오’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청자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 종결 어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의 ‘大王하’와 ‘대왕이시여’를 비교해 보면, 중세 국어에 현대 국어와 형태는 다르지만 높임의 의미를 지닌 호격 조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수능특강 문법 수능연습2 2번

2. (보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표기가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종종 혼동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두 단어의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령 ‘(편지)를 부치다’와 ‘(우표를) 붙이다’는 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붙이다’의 경우 구개음화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부치다’와 발음상의 차이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 이처럼 표기가 달라도 발음이 동일해서 혼동하는 단어의 쌍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 ① • 거치다: 대전을 거쳐서 간다.
• 걷히다: 안개가 걷힌다.
- ② • 반드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반듯이: 물건을 반듯이 놓다.
- ③ • 앉히다: 자리에 앉힌다.
• 안치다: 밥을 안친다.
- ④ • 늘이다: 고무줄을 늘인다.
• 늘리다: 수출량을 늘린다.
- ⑤ • 걷잡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다.
• 걸잡다: 대충 걸잡아서 예상하다.

○ 수능특강 실전모의고사 2회 11번

1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한 단어의 표준 발음은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여러 개인 경우도 있다. 가령 ‘기-, 피-, 끼-’와 같은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세 가지 표준 발음이 가능하다. 아래의 ㉠, ㉡, ㉢은 적용되는 음운 변동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구별된다.

	㉠	㉡	㉢
기 + 어	[기어]	[기여]	[겨:]
피 + 어	[피어]	[피여]	[퍼:]
끼 + 어	[끼어]	[끼여]	[껴:]

- ① ㉠은 아무런 음운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 ② ㉡은 ㉠과 비교할 때 반모음이 첨가되었다.
- ③ ㉡의 예로 ‘돌리 + 어 → [돌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은 ㉡과 비교할 때 모음의 수가 더 적다.
- ⑤ ㉢의 예로 ‘시 + 어 → [셔:]’를 추가할 수 있다.

○ 인턴잇수능 문법 1강 6번

06 <보기 1>의 표준 발음법 규정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물음에 바르게 답한 것은?

<보기 1>

제17항 받침 ‘ㄷ, ㅌ(ㄹㄷ)’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붙임]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ㅣ,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보기 2>

왜 ‘㉠밭이랑에는 옥수수와 토마토를 심었다.’에서는 ‘밭이랑’을 [바치랑]이 아닌 [반니랑]으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ㄴ’ 음이 첨가되어야 하는 걸까요?

- ① ㉠에서 ‘이랑’이 조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 ② ㉠에서 ‘밭’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 ③ ㉠의 ‘밭’의 ‘ㅌ’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 ④ ㉠의 ‘ㅌ’이 결국 [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 ⑤ ㉠이 합성어인데 앞 단어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의 첫음절이 ‘ㅣ’이기 때문입니다.

○ 인턴잇수능 문법 2강 8번

08 <보기>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접두사 ‘새-’, ‘시-’, ‘셋-’, ‘싯-’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보기> 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새까말다, 시꺼말다
- ㉡ 새파랄다, 시퍼럴다
- ㉢ 새하얇다, 시허얇다
- ㉣ 셋노랄다, 싯누랄다
- ㉤ 셋말갈다, 싯말갈다

<보기>

- ㉠ ㉠~㉣를 보니, ‘새-/시-’, ‘셋-/싯-’은 ‘매우 질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할 때 붙는군.
- ㉡ ㉠~㉣를 보니,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는 ‘새-’ 또는 ‘셋-’이 붙는군.
- ㉢ ㉠~㉣를 보니,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일 때는 ‘새-/시-’를 붙이는군.
- ㉣ ㉠~㉣를 보니, 어두음이 ‘ㄴ, ㄹ’과 같은 울림소리일 때는 ‘셋-/싯-’을 붙이는군.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수능특강 문법 수능연습1 2번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띄어쓰기 기본 원칙)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

(띄어쓰기의 하위 조항)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

- ① ㉠: '눈물'은 '눈'과 '물'로 이루어졌지만 한 단어인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② ㉡: '서울에서조차도'의 '에서', '조차', '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④ ㉣: '자동차 한 대'의 '대'는 단위를 나타내므로 띄어 쓴다.
- ⑤ ㉤: '베어 물다'의 '물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베어물다'로 붙여 쓸 수 있다.

○ 수능특강 실전모의고사 1회 15번

15. 다음 (조건) 을 모두 만족하는 새말 만들기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접사를 하나만 사용한다.
- 어근의 품사는 동사이다.
- 어근과 접사의 원형을 모두 밝혀 적는다.

- ① 흠을 빚을 때 쓰는 도구라는 의미로 '빚개'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열고 희미한 웃음을 가리키는 말로 '푹웃음'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남에게 입게 행동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입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마음이 잘 맞는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로 '참친구'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는 물건을 가리키는 말로 '알리미'라는 말을 만들었어.

○ 수능특강 실전모의고사 2회 13번

13. (보기 1)의 (나)와 유사한 사례를 (보기 2)의 ㉠~㉥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누구, 무엇, 어디’ 등의 대명사는 모르는 대상을 묻기 위한 말로도 쓰일 수 있고 어떤 대상을 꼭 집어 가리키지 않으며 언급하는 말로도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의 ‘어디’는 화자가 모르는 장소를 청자에게 물을 때 쓰인 것이다. 이에 비해 (나)의 ‘어디’는 어떤 장소를 꼭 집어 가리키지 않을 때 쓰인 것이다.

(가) 민희: 너 그거 어디에서 샀어?
수지: 시장에서 샀어.

(나)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널 찾을 것이다.

(보기 2)

엄마: (초인종 소리를 듣고) ㉠누구세요?
아들: 저예요. 시험이 끝나서 일찍 왔어요.
(들어오며 엄마가 음식 준비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만드세요?
엄마: 잡채 만들고 있어.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아들: 그래요? 오는 사람이 ㉢누구인데요?
엄마: 동수 엄마가 동수 데리고 오기로 했어. 그런데 동수는 ㉣무엇이나 잘 먹니?
아들: 예,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근데, 동수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세요?
엄마: 잡채를 좋아하지.

- ① ㉠ ② ㉡ ③ ㉢ ④ ㉣ ⑤ ㉤

○ 인터넷수능 문법 3강 8번

08 다음 중 수정 방향에 맞게 고쳐 쓴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쓰기</p>
<p>[사례1]그 가방의 디자인과 이 가방의 디자인은 틀린 거야. [수정 방향]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고친 문장]그 가방의 디자인과 이 가방의 디자인은 다른 거야. ……………①</p>
<p>[사례 2]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수정 방향]정확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고친 문장]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②</p>
<p>[사례3]그가 나무에게 물을 주었다. [수정 방향]조사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고친 문장]그가 나무에게 물만 주었다. ……………③</p>
<p>[사례 4]수익금 전액은 문화 사업에 사용되어집니다. [수정 방향]중복된 피동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친 문장]수익금 전액은 문화 사업에 사용됩니다. …………… ④</p>
<p>[사례 5]오늘은 여간 더운 날씨이다. [수정 방향]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고친 문장]오늘은 여간 더운 날씨가 아니다. …………… ⑤</p>